백두산

27호 - 주체91(2002)년 5월 11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우리는 이회창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 통일연대, ≪반민주 반통일 이회창, 한나라당 반대 규탄대회≫진행

≪수구세력을 대변하고, 민족의 화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이회창씨는 대선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공식지명되던 날,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달아 진행됐다.

10일 오전 3시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잠실 아시아공원 앞에서 소속단체회원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민주 반통일 이회창, 한나라당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중의례 후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산자여 따르라≫는 노래가사에 89년 오늘 죽음을 맞이했던 이철규 열사가 생각난다≫며 ≪열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열사가 죽은 날에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열고있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대회사를 시작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정된 이회창씨는 과거 대쪽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어 아들의 병역문제, 세풍, 방탄국회 등 각종 부정부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회창 전 총재를 비판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올 초 ≪악의 축≫ 발언이 부시와 이회창의 합작품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족이 화해하고 단결하는 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나라사랑청년회 서현경 회장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반대하는 이유로 △아버지의 친일행적 △이회창 대선후보의 반통일 행위 △두 아들 병역비리 △호화빌라 △며느리 해외출산 등을 들며 ≪민족과 국민의 요구를 뒤로하는 이회창씨는 대선후보가 아니라 정계은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지지와 대권 구걸 △색깔론을 부추기며 공동선언 실현 방해 △국가보안법 폐지불가 주장 등을 들어 이회창 전 총재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회창 대선후보와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한나라당의 정책적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이회창씨가 대선출마를 포기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선출은 한국정치의 수치이며, 한총련은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한나라당 대북기본노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이회창 대선출마 찬반 거리투표 △실천단 반창회(反昌會) 활동 △이회창 금강산 관광보내기 모금운동 △한나라당 당명 ≪딴나라당≫바꾸기 사이버 서명운동 등 10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대선 때까지 이회창 후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5/10

**2 종합**
- 우리 군대 제일주의
- 태양칭송의 무대
-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 칭송
- 반민족적 연합토지관리계획 반대투쟁
- 침략자 미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
- 이른바 ≪인권문제≫는 자주권침해행위
- 남측은 경협회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4 노작**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

**6 세기와 더불어**
- 8장 2절 오의성과의 담판 (1)

**8 칭송**
- 장군님께서 무엇보다 존중하시는 장점
- 기다리는 평양
- 지략과 영군술

**9 노동신문사설**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열두가지 사항≫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호전세력
- 5.10단선과 미국
- 윤용하희생 11주기에 부쳐
- 노동자 희생시키는 조선일보 박살내자

**13 투쟁보도**
- 6.13선거, 시민단체 ≪시민후보들≫ 일낸다
- 반이회창투쟁은 응당한 것
- 12일, 대전지역 안티조선 집회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6)

# 경기도지사 김준기후보

4월 30일 경기도청 기자실(수원)에서는 범진보진영 경기도 지사 김준기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 되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범진보진영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준기후보는 ≪제대로 된 한국진보정치로 민중의 희망으로 다가서겠다≫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것은 ≪미군기지 없는 살기좋은 경기도,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이 살 맛 나는 경기도, 21세기 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겠다≫며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우리 군대 제일주의

올해 정초 조국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에서는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기 위한 4대제일주의의 하나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아무리 령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며 힘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여도 군대가 강하지 못하면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할수 없다. 군대가 강하면 설사 당이 무너진다 하여도 다시 조직할수 있지만 군대가 약하면 당을 유지할수 없는 것은 물론 인민이 이룩해 놓은 창조물들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낼수 없으며 종당에는 나라가 망할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대가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도 결코 승리할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민족사가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강력한 군대라고 할때 그것은 무장장비와 병력수만을 념두에 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지난 력사적과정에 오랜 세월 품들여 건설한 방대한 무력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보호하는데서 무용지물이 된 실례들이 적지 않다.

공동사설은 전군에 최고사령관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며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정을 지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하며 인민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군대는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국인민들은 오랜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새긴 인민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해 주신 우리 군대는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으며 끊임없이 승승장구하여 왔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우리 군대는 사회주의의 수호자.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상과 투쟁기풍, 일본새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 인민의 거울, 혁명대오의 기수로 되어왔다. 이것은 독창적인 선군로선을 제시하고 군대를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으로 하여 조국을 이끄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장들에 의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오늘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행복을 지키는 무적의 강군, 필승불패의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이렇듯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피디에프잡지 ≪금수강산≫ 5월호

# 태양칭송의 무대

스무번째 년륜을 아로 새기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4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된 제20차 축전에는 60여개 나라들에서 온 100여개 예술단, 교예단들과 해외동포예술단 그리고 우리 나라예술단들이 참가하였다.

만수대예술극장, 봉화예술극장,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장, 평양교예극장 등이 이번 축전무대로 되였다.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진행된 축전무대에는 세계5대륙에서 온 수많은 국제, 국내콩쿨수상자들과 명배우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 주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노래를 불렀으며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업적에 대하여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그들은 세계적인 명곡들을 훌륭히 불렀으며 민족적색채가 짙은 자기 나라의 예술종목들을 잘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특히 그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이번 축전무대를 더욱 의의 있게 장식하였다.

아름다운 예술적화폭들을 무대에 펼친 축전참가자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기념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특색있는 친선행사, 인상깊은 참관과 관람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자주, 평화, 친선의 시대적리념을 표대로 삼고 문화예술인들의 친선과 단결, 련대성을 목적으로 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이번에도 세계 여러 나라 문화예술인들사이의 친선단결과 민족예술의 자주적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고 인류문화예술발전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크게 공헌하였다.

글 강윤희

피디에프잡지 ≪조선≫ 5월호

##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 칭송

광주시에 살고 있는 사학자 강형근씨가 지난 4월 30일 이북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한 소식에 접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정의감이 강한 민족이었지만 총대가 약한 탓에 망국노의 치욕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던 우리 겨레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모셨기에 우리 민족을 지킬 무적강군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 일 두 제국주의침략군을 무릎 꿇게 했으니 이북군이야말로 천하제일의 강군이다.≫

강씨는 이북의 군력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해 더욱 강해졌다면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나라의 군사적 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최상으로 강화시킨 특출한 업적을 쌓으셨다.

오늘 이북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눈아래로 내려다보며 자기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것도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있기 때문이다. 정녕 **김일성**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강화해나가시는 이북군은 영원한 승리자로 세상에 자랑 떨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9일

# 반민족적 연합토지관리계획 반대투쟁

## 각계, 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 철회와 미군기지 즉각 반환 요구

각계 민중들속에서 반민족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9일 미국과 ≪한국≫군당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커다란 분노와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이번에 확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는 용산미군기지, 매향리폭격훈련장을 비롯한 미군기지와 훈련장들의 철수문제가 언급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한미군사동맹관계가 한반도에 미군기지를 영구보존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적극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이번에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 및 미사일방어체제실현을 위한 전면재배치를 노린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총련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토지계획의 두배에 달하는 땅을 새로 미군측에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미군기지신설확장에 1조 4900억원을 밀어넣기로 한데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남에 대한 미군기지신설확장, 반미여론의 무마를 위해 이런 불평등하고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추진돼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반대하는 투쟁은 여러 단체들의 연대항거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부산지역본부와 부경총련, 사회당 부산시지부 등 8개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기지이전이니 통합이니 하면서 새 땅을 빼앗으려는 미국의 진짜 속셈은 이남에 대한 영구지배를 노린 것이라고 폭로하고 미군의 전면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려는 부산시당국의 행위에 대해 폭로하고 그것은 민중의 이익과 요구를 무시한 대미굴종적이며 반민족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한총련소속 학생들은 서울 용산에서 집회를 갖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불평등한 협정으로 낙인찍고 그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성원들과 대학생들의 참가밑에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도 열렸습니다.

얼마전에 새로 결성된 미군기지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미군기지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범시민대책위원회,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와 우리땅되찾기경기도운동본부를 비롯한 단체들도 시위와 집회 등 반미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각계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전면 철회와 미군은 기지를 즉각 반환하고 이 땅을 떠나라는 항의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들에는 미군기지신설을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9일

# 침략자 미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

서울에서 8개 단체들이 망라된 반미축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여 활동에 들어 간데 이어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부쉬의 ≪악의 축≫망발을 규탄하면서 ≪(악의 축)은 부쉬자신이다≫, ≪미국의 F－15K전투기강매책동을 반대한다≫라고 웨치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로동신문≫ 9일부는 이것은 침략자 미제에 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50여년간에 걸친 미제의 남조선강점사는 침략과 략탈의 력사, 살인과 범죄의 력사이다. 최근에만도 미국대통령 부쉬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걸고 들면서 북남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사상최대의 전쟁연습을 벌리였다. 미국은 ≪외교통상부≫ 장관 최성홍을 미국에 불러 들여 북남대결을 고취하였고 안변청년발전소언제의 ≪붕괴위험≫설을 퍼뜨리면서 북남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지금 반미축전을 성사시켜 반세기이상 미국에 억눌려 온 민족의 권리를 되찾고 미국에 의존하는 사회기풍을 깨버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서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나라의 자주통일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도 실현할수 없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깨닫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미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5월 8일

# ≪인권문제≫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것은 자주권침해행위

≪로동신문≫ 9일부는 최근 미국이 조선의 ≪인권문제≫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신문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조선에서는 사람들의 자주적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이 조선에 적용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에 대하여 말하면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사실을 들어 폭로하면서 론평은 그들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를 시비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이 조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계속 걸고 드는것은 그들이 결코 다른 나라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적요충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며 군사적간섭의 구실을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조선의 ≪인권문제≫를 걸고 드는것은 그것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음흉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외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계속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쓸데 없는 시비질을 하다가는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미국은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그만 두어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하기전에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9일

# 남측은 경협 제2차회의가 열릴 수 없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9일부 ≪민주조선≫은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열릴수 없게 한 책임을 져야 하며 최성홍의 망발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시급히 갈아 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게 되여 있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실은 론평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날뛰는 대결분자가 남조선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활개치는 한 북남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할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혹이 커지는 조건에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설사 열린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에 있다.

사실을 외곡하고 날조하는 악담질로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모독하는 대결분자를 안에 두고 아무리 화해요 단합이요 관계개선이요 하고 광고해도 그것은 빈 말공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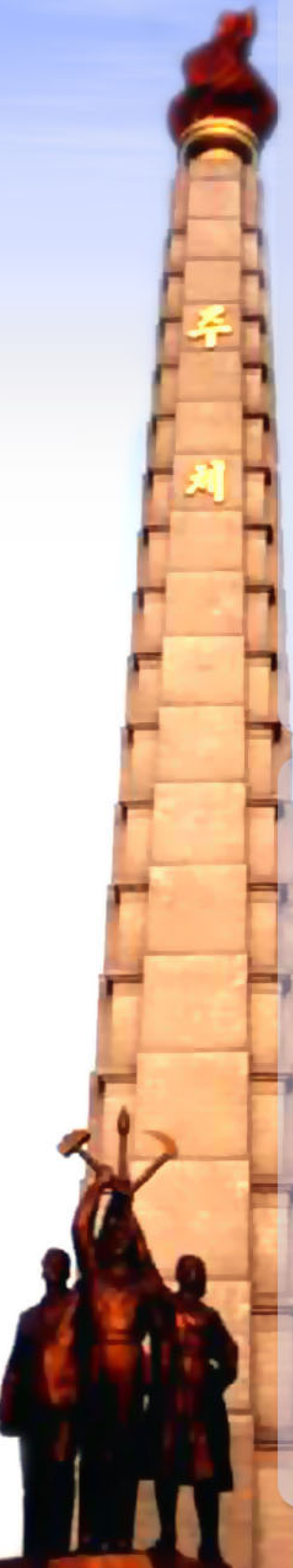
최성홍과 같은 대결분자를 그대로 둘수 없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확고하며 변함이 없다.

우리는 사태의 발전추이를 지켜 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5월 9일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80(1991)년 5월 5일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염원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여 왔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웠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사회로서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호주의를 건설해 온 수십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과 비방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한 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새롭게 밝혔으며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 내세웁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회적 운동 그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며 사회역사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적 운동에서 주체로 되는 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창조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 역사의 창조자로 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역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도식하는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지위가 전도된 사회를 끝장내고 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회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체의 핵심부대로 내세웁니다. 노동계급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 있는 계급입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관계로 노동계급이 비록 많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주성과 혁명성이 가장 강한 선진계급으로서 혁명의 핵심역량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부터 노동계급을 혁명의 영도계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계급적 요구를 민족적 요구와 함께 혁명의 모든 노선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이르는 모든 혁명이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 그 역할이 더욱 높아져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전반적 면모는 점차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어 노동계급화된 사회, 무계급사회로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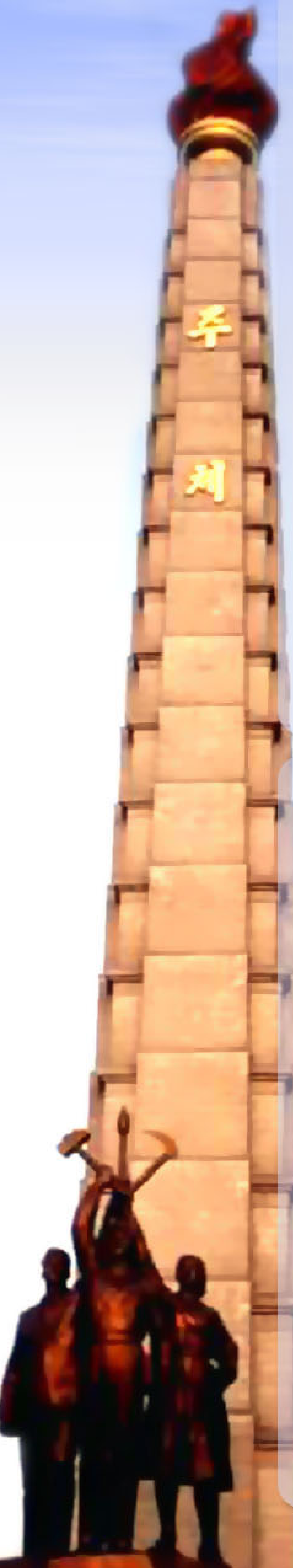
우리의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라는 것은 결코 노동계급만을 위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 진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며 노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민은 노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체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루며 혁명의 동력으로 됩니다. 지난날 농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민의 이익을 옳게 실현하는 것은 혁명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노동계급의 요구 뿐 아니라 농민의 염원에도 맞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도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길을 따라 자원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민의 염원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농민을 적극 도와주어 그들의 염원과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민을 노동계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하는 데 따라 그들의 역할은 더욱 더 높아집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중요한 혁명역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의 인테리들이 식

→

#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반제자주정신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며 노동자, 농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의 인테리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역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착취계급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결코 혁명과 반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를 사회계급적 토대만을 가지고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계급적 처지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상의식을 통하여 미치게 됩니다. 사회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도 혁명적 영향을 받으면 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 진보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 토대를 따지지 않고 그를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기본계급 뿐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을 혁명역량으로 묶어세웠으며 사회주의혁명에서도 부농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 사람들은 지난날 어떤 계급과 계층에 속하였건 관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일시적인 동반자로가 아니라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옳게 구현하여 극소수 적대세력의 반혁명적 책동을 제때에 저지파탄시킨 것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사회계급적 지반 위에 올려 세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이익에는 집단의 이익과 함께 개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이익 위에 개인의 이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배치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인 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집단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위에서 매 개인의 이익도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과 배려가 돌려지고 있으며 온 사회에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활짝 꽃펴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 집단의 이익, 인민대중의 이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어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울 수 있었으며 오늘 더욱 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국제적 친선과 협조를 필수적 요구로 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유리한 조건을 지어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연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요구와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 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위업이며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이익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자면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자면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모든 사회현상의 진리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혁명실천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그에 맞게 처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당면이익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옳은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실생활에 바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 2. 오의성과의 담판 (2)

투쟁무대를 왕청으로 옮긴 후 우리의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는 반일부대와의 관계에서 생긴 심각한 대립이였다. 일제의 집요한 이간책동과 반일부대 두령들의 빈번한 동요, 소비에트 좌경노선의 해독적인 후과로 하여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관계는 1933년에 들어와서 다시금 교전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9.18사변 후부터 만주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 막대한 정열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 노력을 결실로 초기에는 왕청유격대를 일방으로 하고 관영장부대를 타방으로 하는 두 무력이 힘을 합쳐 1932년 봄에 덕골에서 일본수비대의 침공을 격퇴한 것은 그 좋은 실례로 된다.

그때 대두천의 일본군수비대는 국민당시절에 해놓은 목재를 실어가려고 수십 대의 마차를 끌고 덕골 방향으로 나왔다. 대왕청, 소왕청골안에는 목재가 무진장하게 쌓여 있었다.

이날 아군은 유인매복전으로 40-50명이나 되는 일본수비대 병력의 대부분을 소멸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였다.

덕골전투는 반공풍조가 뿌리깊이 스며 있는 왕청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협동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를 지어주었다. 이 전투는 공산주의자들이 구국군속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덕골전투가 있은 후 김은식, 홍해일, 원홍권, 장룡삼, 김하일 등은 관부대에 입대하였다.

명사수인 김하일은 교통원으로 임명되였고 지식분자인 김은식은 인차 참모장이 되였다.

덕골전투가 있은 다음에도 마촌군중들은 이전날과 다름없이 관부대장병들의 옷을 빨아주었고 칫솔, 치분,

오의성

비누, 수건, 담배쌈지와 같은 선물들을 정성껏 마련해 보냈으며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위문공연도 자주 조직하였다. 공청원들은 선전문과 삐라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였다.

구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퉁즈≫(동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관 부대의 장병들은 혁명군 대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퉁즈≫라고 불렀다.

그 부대에 들어간 동무들은 모두 구위 이상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여서 구국군장병들과의 사업을 아주 능숙하게 하였다. 관영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인품과 능력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을 쟁취한 것은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훈춘지방의 항일유격대는 구국군 부대들과 정보교환까지 하였으며 지어는 주구청산도 공동으로 하였다. 연통라자유격대는 구국군이 원호한 총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진공적으로 달라붙으면 구국군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였다.

그러나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저질러놓은 ≪김명산사건≫으로 하여 모처럼 이루어진 반일부대들과의 우호관계는 영으로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관영장이 흰기를 들고 일제를 찾아가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냈으며 구국군의 다른 부대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격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에서는 최현부대가 귀순하는 반일부대 병사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구국군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왕청유격대는 초기에 구국군과의 관계에서 실책을 많이 범하였다. 대대를 책임진 양성룡은 몇 자루의 무기에 현혹되어 통일전선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그는 품성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유능한 지휘관이였지만 군사실무주의와 모험주의에 빠져 통일전선을 홀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룡을 되게 비판하였다.

관영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항일유격대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견지한 것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은 코산부대였다. 그 부대는 1933년 5월 단오날 박두성이 인솔하는 잣더기(현재의 태평촌)자위대와 연합하여 동녕현성에 기지를 두고 동남차를 거쳐 십리평으로 쳐들어온 3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수비대와 위만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구국군이 망원경계를 무시하고 문전보초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반일자위대는 코산부대의 망원보초까지 서주었다. 코산은 다른 반일부대들에 지급으로 중요한 연락을 보낼 때에도 십리평의 반군사조직들에 곧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면 소선대원들이 반일부대 병사들을 대신하여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에 주었다.

그러나 이런 우호 관계가 다른 부대들과의 관계에까지는 확산되지 못하였다. 유격구역을 휩쓸고 있던 좌경망동 바람은 코산과의 이 동맹관계마저 깨뜨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좌경시책은 어젯날까지 동맹관계에 있었거나 동정적인 관계에 있었던 반일부대들의 부패변질을 앞당긴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중국인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극좌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구국군과는 하층통일만 해야 한다≫느니, ≪구국군병사들로 하여금 자기 두령을 죽이고 반변해 나오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주, 자산 계급인 장관들을 타도하라!≫, ≪병사들은 반변을 일으켜 유격대로 넘어오라!≫는 구호를 망탕 고창하였다. 이런 구호는 반일부대와의 상층통일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일부대는 조선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여 죽이고 ≪로꼬리 궁챤당≫이라고 하면서 죽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를 벌였다. 그들은 만주를 강점한 첫날부터 장학량의 구동북군에서 항일의 기치를 들고 떨어져 나온 구국군부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일제가 여기서 제일 두려워한 것이 바로 유격대와 구국군의 연합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구국군 부대들과의 합작을 실현하기만하면 그것이 곧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와 대륙침략을 방해하는 무서운 힘으로 되어 저들의 숨통을 조이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의 이간솜씨는 벌써 만보산사건과 용정사건(조작만 하고 실현되지 못하였다), 무순사건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일제의 첩보모략기구는 조중인민의 선린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금수나 돌부처도 낯을 붉힐 무순사건이라는 살인극도 서슴없이 조작하였다.

무순사건이란 일본의 첩보기관이 한 일본인에게 단도를 주어 무순에서 아무 죄도 없는 중국사람을 살해하게 한 것이다. 일본의 모략가들은 그때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죽이고 도주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자객에게 두루마기를 입히고 조선사람으로 변장시켰다. 살인은 성공하였으나 자객이 입고 갔던 두루마기밑에서 일본옷이 발견되고 그가 일본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무순사건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사건들을 확대하면 유조구사건도 되고 노구교사건으로도 된다. 일본이 어떤 모략을 꾸밀 때 적용하는 방정식은 이처럼 유치하고 악랄한 것이였다. 그러나 적잖은 사람들은 가짜를 잘 날조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법 때문에 노상 골탕을 먹으면서도 그 가짜에 쉽게 속아넘어가곤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조선사람이 만주를 빼앗으려 한다≫, ≪공산당은 구국군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민생단≫에 망라된 반동분자들을 내세워 ≪간도 조선인 자치구≫와 ≪조선법정자치정부≫의 수립을 골자로 하는 조선인의 간도자치를 부르짖게 하였다. 때로는 중국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조선유격대가 한 짓이라

→

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연합전선을 파국에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일제의 악랄한 귀순공작과 그에 따르는 반일부대 두령들의 항일의식의 변질에 있었다.

1933년 1월에 훈춘현 토문자에 주둔하고 있던 왕옥진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들에게 투항하였다. 그 중 수백 명에 달하는 역량이 우리를 반대하는 임시유격대로 개편되었다. 2월에는 소왕청에 있던 관 부대의 반수가 귀순하여 만주국 보위단과 공안국에 채용되었으며 같은 달 대황구 근처에서 출몰하던 마계림부대 장병 수십명도 전향하여 하마탕자위단에 합류하였다. 왕청현 이차자구의 강해부대와 화소포의 청산부대 장병들도 귀순을 신청하였다.

일제는 노흑산 일대에 웅거하고 있던 악명 높은 토비대장 동산호를 매수하여 이광의 별동대를 전원 참살하게 하였다.

유격대는 구국군의 행패가 두려워 밤에만 행군하고 낮에는 행군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사람이 살아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구국군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부터 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다시금 상정되었다.

나는 용단을 내려 구국군전방사령인 오의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왕덕림이 간도 땅에서 떠나가버린 후 구국군의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다. 오의성을 잘 설복하면 ≪김명산사건≫과 이광별동대참살사건으로 하여 동만땅에 동만 땅에 빚어진 유격활동의 경직상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생겼다.

나는 오의성과의 담판을 성사시키지 위하여 반성위와 함께 진지한 의논을 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결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주면서도 오사령한테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중국사람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조선사람이 가서는 오의성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편견이 심한 사람을 휘여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반성위는 오사령이나 채사령을 돌려세우자면 그의 배후에서 모사노릇을 하는 이청천이 작간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였다.

나는 반성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장애가 있든 가야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청천도 조선사람인데 반공분자이긴 하지만 설복을 잘하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구면입니다. 길림에서 3부통합회의를 할 때 그와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청천하고는 잘 아는 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면, 초면이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사람들이 뭐 구면, 초면을 가리는 줄 아오? 게다가 오의성은 벽창호라지 않소. 승산이 없거든.≫

반성위는 나의 모험을 저지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나에겐 안도에서 우사령을 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사령을 돌려세웠는데 오의성이라고 왜 돌려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우사령과 담편을 할 때는 유본초선생이 참모장으로 있지 않았소. 그게 좋은 배경이었단 말이오.≫

≪그런 배경은 오의성부대에도 있습니다. 진한장이 거기서 비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장을 하는 호진민도 공작원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만 자가당착에 빠졌다. 내가 든든한 배경이라고 역설한 진한장한테서 얼마전에 결정적인 응원을 바란다는 요청의 편지가 왔던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오사령과의 동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되었다고 전제를 둔 다음 ≪**김일성**동지가 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조직에서 가급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반성위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다.

진한장

≪혁명의 전도가 아직 요원한데 그렇게 모험을 해서야 되겠소? 제발 심사숙고해 주시오.≫

반성위는 끈덕지게 나를 설복하였다.

≪자기의 몸을 개인의 몸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소. 자칫하면 제2의 이광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다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동무들만은 살아서 끝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줘야 할 게 아니오!≫

반성위의 그 말은 나를 적이 감동시켰다. 그러나 나는 공동전선의 대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반성위가 훈춘현으로 떠난 다음 동만의 각현에 있는 유격대 대표들은 왕청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통일전선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중심을 이룬 안건은 구국군과의 동맹문제였다. 이를테면 오의성, 채세영, 사충항 등의 구국군이 집결되어있는 나자구에 누가 담판을 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나는 구국군의 집결처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회의는 호위성원이 100명 정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나의 나자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의성을 찾아가는 경로가 이처럼 간단치 않았다.

오의성과 담판하자면 먼저 진한장이나 호진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정부터 요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진한장은 오의성의 비서장인데다가 고정한 사람이어서 사무실에만 배겨있었지 밖에 잘 나다니지 않았다. 설사 밖에 나온다고 하여도 조선사람들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전날 내가 관여하던 공청조직의 성원이었고 또 그때 서로 맹세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에게 편지를 쓰고 뒤이어 오의성과 채세영에게도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나자구로 가는 취지를 밝혔다. 발신인 이름 옆에는 격을 갖추느라고 네모나게 생긴 큼직한 도장도 찍었다.

편지를 발송한 다음 나자구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해 오의성부대의 동태를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좋았다. 나자구의 지하조직들은 구국군이 시내 입구에 ≪조선인반일유격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써붙인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나자구시가 전경

나는 선발된 100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나자구로 떠났다. 새 군복을 입고 새 총에 새 가죽가방을 메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가는 우리 부대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인솔하였다.

태평구에 도착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의 나자구 입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오의성 부대에 전령병을 파견한 다음 거기서 회답을 기다리며 하룻밤 유숙하였다.

다음날 나자구에서 담판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왔다. 오사령이 이처럼 담판에 응해나서기까지에는 진한장의 보증이 큰 힘을 냈다. 내 편지를 받고 오의성에게 자기가 김대장을 아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오의성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인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잘 아는가? 너도 공산당이 되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진한장은 김대장이 동창생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가 퍽 오래다고 하였다.

≪너의 동창생이고 좋은 사람이라면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는 구국군이 우리를 억류하고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대처하여 즉시 응원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 훈춘에서 온 1개 중대를 태평구 아랫마을에 배치한 다음 나머지 50명만 데리고 붉은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자구시내로 들어갔다.

유격대를 마중하러 나왔던 진한장이 구국군 지휘부로 나를 안내하였다. 담판중에 나를 보좌하게 되어 있는 조동욱과 연락병 이성림도 목갑싸창을 차고 진한장을 따라갔다. 지휘부에는 국민당계통의 부관들이 많이 와 있었다.

(내일 계속)

일화

# 장군님께서 무엇보다 존중하시는 장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신념을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참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신념을 참인간, 참삶의 기본핵으로, 기본척도로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는 늘 간부들과 민중들에게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하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한다.

주체80(1991)년 11월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간부들과의 담화석상에서 이인모동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전향문만 한장 쓰면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가 무슨 힘으로 수십년동안 적들에게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오늘까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혁명가의 지조를 꿋꿋이 지켜나갔겠는가, 그것은 그가 당과 수령이 있는한 우리 혁명은 승리하고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인모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다 라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었다 한다.

이인모동지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다.

이처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신념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참삶의 표척으로 내세우고 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지식한 것을 사람의 장점으로 일러주신다.

어느 한 정치가는 자기의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보다 존중하는 장점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사람에게서는 소박성, 남자들에게서는 정열, 여자들에게는 유순≫이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사람에게서 소박성이 장점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박성에 앞서 고지식한 사람을 일러주신다.

언제인가 그분께서는 간부들에게 당시 인민무력부장으로 사업하던 일꾼의 고지식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꾸중을 들을까봐 좋은 것만 보고하고 나쁜 것은 보고하지 않는데 그는 나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자신께 보고하고 꾸중도 많이 들었다고, 그처럼 고지식하기 때문에 자신께서는 그를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앞뒤가 따로 없는 고지식함에 변혁운동가의 인생의 고결함,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가는 처세술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눈치놀음을 하고 요술과 농간을 부리며 기회를 보며 표리부동하게 행동한다.

이런 사람은 종당에 간신으로 변한다.

그러나 고지식한 사람은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거짓과 가식을 모르며 수령의 가르치심과 당의 정책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집행한다.

고지식한 사람이야 말로 참인간, 참된 충신이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고지식함을 변혁운동가의 장점으로 보시고 고지식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다.

송가

# 기다리는 평양

햇빛이 찬란하여 사철 꽃피고
혈육의 뜨거운 정 넘치는 평양
따뜻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서
동포여 어서 오라 부르고 있네
서울서 평양은 가까운 지척
장벽을 허물고 대통로 열자
위대하신 장군님 그 품 찾아
우리 동포 누구나 어서 오라
태양이 밝고밝은 평양
평양 기다리네

민족의 통일성화 높이 지피어
한강의 물위에도 비치는 평양
통일의 한길에서 얼싸안자고
동포여 어서 오라 두팔 벌리네
서울서 평양은 가까운 지척
장벽을 허물고 대통로 열자
위대하신 장군님 그 품 찾아
우리 동포 누구나 어서 오라
태양이 밝고밝은 평양
평양 기다리네

흠모

# 지략과 영군술

오늘 국제사회는 **김정일**장군을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신 걸출한 군사의 영재, 강철의 영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휴전이래 수많은 군대가 대치된채 50여년동안이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이 대결을 가리켜 ≪무혈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대치쌍방 군수뇌부사이의 전략전술의 대결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장군과 펜타건사이의 첨예한 지략의 대결인 것이다.

휴전이래 미국은 이북에 대한 무력도발을 빈번히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왔다. 70년대 중엽에 와서 미국의 군사적 전횡은 더욱 우심해졌다. 76년 ≪판문점사건≫으로 정세가 각일각 긴장해지고 있던 어느날 **김정일**장군께서는 이북군부의 한 고위간부를 부르신 적이 있다.

그분께서는 그를 데리고 평양시 교외의 한 호숫가로 나가시었다.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계시던 그분께서는 평양시건설에 인민군 군인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는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셨다. 군사문제와는 관련없는 그분의 말씀에 군장성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함께 적들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벌써 이겼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위대한 영장을 모신 기쁨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고 훗날 술회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이남 국군이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던 81년부터 86년사이에 숱한 인민군부대들을 대자연개조사업인 서해갑문건설에 동원하시어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실을 놓고 보아도 **김정일**장군의 배짱과 지략이 어떠한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상사람들은 미군부와 **김정일**장군과의 두뇌대결전에서 극치를 이루었던 93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93년 정초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93≫한미합동훈련과 미국의 사주하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핵특별사찰≫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이고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에도 **김정일**장군의 태도는 자신만만하고 여유작작했다. 그분께서는 그때에도 전승 40돌을 기념하여 평양시에 건립되는 건설대상들에 인민군 군인들을 동원하셨다 한다. 사실 펜타건의 작전가들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평양도 어마어마한 군사적 위협과 ≪핵사찰≫압력으로 포위환을 좁힌다면 수그러들리라고 타산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그들이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은 군사의 영재이신 **김정일**장군의 지략이었던 것이다. 원래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장군의 지략과 전략을 연구하는 ≪K.J.I.≫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장군의 변화무쌍한 지략은 컴퓨터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일**장군은 영활무쌍한 지략과 함께 뛰어난 영군술을 지니고 계시는 희세의 영장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영군술을 지니고 계신다.

전 소련국방상 드미트리 야조브원수가 술회한데 의하면 그분께서는 군인을 기본으로 무장력을 고찰하는 군인중심론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를테면 전쟁승리의 기본은 무기보다도 그 담당자인 군인이라는 것, 즉 군인을 무장력의 주체로 보신다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사람중심, 사상위주의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무장력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군인이며 군인들의 사상과 도덕에 의해 전쟁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밝히시었다. 이것이 그분의 영군철학이다.

이 위대한 영군철학이 군건설위업에 구현되어 이북의 인민군에는 최고사령관과 장병들간의 혼연일체가 철저히 보장되었다.

이북의 군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김정일**장군의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는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

미국방성의 고위당국자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지닌 영군적 예지는 놀랍다기보다는 경이적이며 부럽다기 보다는 매혹적이며 출중하다기 보다는 전무후무한 것이다≫라고 격찬한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늘 **김정일**장군에 대한 서방군사평론가들의 찬양과 선망은 그분의 군사적 지략과 영군술의 위대성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이라 하겠다.

**김정일**장군과 같은 불세출의 명장, 호국의 대영웅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겨레의 안보와 번영의 담보로써 민족의 대행운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

##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5월 9일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전통적인 투쟁구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 지고 있는 새 세기의 특징을 통찰하시고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는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는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야 실지 자력갱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은 강성대국,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해결의 방도를 언제나 과학기술발전에서 찾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성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밀고 나갈데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멀지 않은 앞날에 이 땅우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가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강국건설의 목표와 요구는 비할바없이 높으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하는 길은 과학기술을 틀어 쥐고 나가는데 있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은 우리 힘, 우리 식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구호이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이다. 우리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21세기에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면 마땅히 과학을 중시하고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한다. 뒤떨어 진것을 창의고안하는 식으로 경제사업을 밀고 나가는것은 오늘날의 자력갱생과 인연이 없다.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건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틀어 쥐여야 하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자고 하여도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우리의 힘을 키우고 자력갱생이 내세우고 있는 근본요구를 더 훌륭히 실현하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체화되여 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때 우리는 **김정일**강성대국시대에 어울리는 국가경제력을 갖추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문명한 인민으로 되게 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주정신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하여 더 빨리, 더 높이 전진하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강성대국건설은 투쟁정신 하나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다. 투철한 혁명정신도 높은 창조력과 결합될 때 응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로 뚫고 나가는 투철한 혁명정신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 나가는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니는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강성대국건설자의 자질이고 풍모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와 열의는 비상히 높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변시키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한 우리 인민의 비상한 혁명성과 투쟁력이 현대적과학기술의 위력과 높은 수준에서 결합될 때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고 우리를 봉쇄하며 질식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 지고 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계속 승리의 만세소리를 울리는 길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는데 있다.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립장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와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경제력을 다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 주신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한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력갱생사상의 계승이며 발전풍부화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 지고 제 힘으로 밀고 나갈데 대한 자력갱생의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구현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 따라 혁명하는 나날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였으며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으로 존엄 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의 현실적조건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를 명백히 밝혀 주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과 업적을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때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은 최근년간의 우리 인민의 투쟁이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 따라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 져 21세기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닦아 졌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마련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서 큰 은을 내고 있다. 라남의 봉화는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고귀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자력갱생의 길에 강성대국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신념은 곧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뚫고 나갈 방도가 생기지만 제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열려 진 문도 찾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제 힘으로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오늘 이 땅우에 빛을 뿌리는 혁명의 전취물마다에는 자력갱생의 고귀한 넋과 우리 인민의 피와 땀이 스며 있다. 자력갱생은 어제도 기적과 위훈의 상징이였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오늘에도 비약과 혁신의 기치이다.

우리는 혁명의 전 세대들이 창조한 자력갱생의 력사를 귀중히 여기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 전화의 포화속을 뚫고 재더미우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을 앞을 내다보며 전망성 있게 전개하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은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기풍이며 강성대국건설은 우리 대만이 아니라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우리는 모든 사업을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대담하게 일을 해제끼는 사업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하나의 생산공정, 하나의 공장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현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는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발전추세와 수준을 똑바로 알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현대적기술을 받아 들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현행생산에만 몰두하면서 기술발전을 홀시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관점을 배격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건하는데 투자를 앞세우며 과학기술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더 질적으로 키워 내는데 전 국가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초과학교육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

전 국가적, 전 사회적리익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자력갱생이다.

사회주의실리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관리원칙이다. 전 국가적, 전 인민적리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적리익이 실지로 보장되게 하는데 사회주의실리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모든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발전을 국가의 전반적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경제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하나의 사업을 설계하고 내밀어도 국가적견지에서 리익이 되는가를 따져 보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대로 생산의 전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한다.

새 세기에 맞는 자력갱생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아는것이 많고 시야가 넓어야 한다.

일 잘하는 일군이란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자기 부문에 정통하고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안목에서 대담하게 진행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창조물을 손색없이 일떠세우는 일군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허심하게 노력하여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 자기 부문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정열과 지혜를 바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걸린 문제의 해결방도를 과학기술발전에서 찾으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나갈 때 경제강국건설은 비상히 높은 속도로 전진해 나갈것이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은 투철한 사회주의 신념과 불 타는 애국적헌신성에 의하여 추동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건설 위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김정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 나가야 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3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9일**

# ≪열두가지 사항≫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6번에 나누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리셨을 때부터 지니고 계신 천품은 무엇이고 어리셨을때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료강의로써 ≪열두가지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은 그이께서 어리신 시절에 지니셨던 뛰어난 기질과 비범한 성품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되는 ≪열두가지 사항≫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어리신 시절에 보여주신 비범한 성품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두가지 사항≫이란 무엇이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치원을 거쳐 인민학교에 갓 들어가셔서 공부하실 때 담임교원은 그이의 뛰어난 기질과 성품에 탐복하면서 그이의 학습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교원은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여 자기가 담임했던 학급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되어 오는 담임선생에게 학급사업을 인계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학습과 생활조직해서 반드시 참작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작성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두가지로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열두가지 사항≫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어리신 시절에 보여주신 뛰어난 기질과 성품을 말해주는 귀중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사항**

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노작, 특히는 최근 발표된 노작 최고사령부의 보도(그때는 조국해방전쟁 시기였습니다) 최고사령부의 보도, 나라 안팎의 정세 등을 제때 그리고 자세히 연구할 것.

**김정일**학생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며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묻곤 한다. **김정일**학생은 그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원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대답할 생각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됨.

이렇게 적어놓은 교원은 ≪철저히 준비가 없으면 말문이 막혀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이라고 참고부호를 치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첫번째 사항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신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여기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실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문헌접수토의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1953년 3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차기 위하여 오후 복습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교실에서 나갔으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교과서와 숙제장을 걷으시고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공차기를 끝내고 들어온 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책을 보시는가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며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당중앙위원회가 편지 형식으로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내보낸 중요한 문헌인데 여기에는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이 반드시 알고 행동에 옮겨야할 당의 기본요구가 적혀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노작들을 깊이 학습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최고사령부 보도를 듣고서야 하루 학습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대에 갓 들어셨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조직인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셨는데 이 사실은 그이께서 어리신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학습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신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깊이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함. 그러므로 약속을 소홀히 대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교권을 잃을 수 있음.

그이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약속을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군 군인들이나 평범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꼭꼭 지키시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약속을 법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진짜 혁명가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시며 약속을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하는 문제를 공산주의자의 풍모를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까지 하신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시간을 매우 귀중히 여김. 헛되이 흘러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일과를 빈틈없이 짜주고 그것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지도해야 함. **김정일**학생의 기질은 세찬 강물의 흐름과 같아 답보와 침체를 모르며 오직 전진만을 지향함.

**≪열두가지 사항≫을 통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리신 그때 벌써 위대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매사에 끝장을 내고야 마는 성미임. 시작한 일은 난관이 아무리 크다해도 중도반단을 하지 않음. 교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김정일**학생은 기어이 그 일을 끝내고야 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런 품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체42(1953)년 4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담임교원은 많은 숙제를 내주었는데 그 숙제만 하여도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제4장을 다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날 오후, 축구 경기를 하고 저녁에는 영화구경까지 하고 나니 피곤이 몰려 그냥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국어 시간에 담임교원은 전날 숙제를 내준 장편 서사시 ≪백두산≫의 제4장을 검열했는데 누구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학생 몇명이 일어섰으나 단 2개절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시의 마지막 구절까지 읊으셨습니다.

사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전날 축구시합을 하시고 영화구경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 과정은 그 날로 꼭꼭 해내고야 마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도 숙제를 마저 하려고 피곤을 떨치시며 자정이 훨씬 넘도록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암송하셨습니다.

**다섯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탐구심이 비상함. 교원이 무슨 문제를 제시하면 끝까지 파고들어 기어이 해명하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문제의 폭을 넓혀가며 고찰함. 그러므로 교원은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나오기까지의 상세한 전후관계를 환히 꿰뚫고 있어야 함.

**여섯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특전을 바라지 않을 뿐아니라 질색함으로 그에 유의해야함. 오히려 **김정일**학생은 교원이 자기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줄 것을 바람. 그러므로 다른 학생들과 꼭 같이 대하면서 요구성을 높여야 함. 교원이 숙제장을 검열하거나 시험답안지를 채점 할 때 나타난 결과를 놓고 사실 그대로 엄격히 평가하며 어떤 경우에는 숙제장과 시험 답안지를 더욱 깐깐히 따져서 평가해 줄 필요가 있음.

**일곱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남에게 뒤떨어지기를 대단히 싫어함. 이런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교원이 **김정일**학생의 경쟁대상이 되여 사고력을 부단히 개발시켜 준다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여덟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일욕심이 보통 아님. 일감을 많이 주면 무척 좋아하고 일감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으면 말이 적어지고 우울해짐. 이점을 참작할 것.

**아홉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일반학생들의 심리상태보다 숙성하고 감수성이 비상하며 **이 많아서 사고력이 깊기 때문에 교습시간에 소설을 지니치게 오래 들려주면 감동함에 유의해야 함. 교수안 작성에서 이점을 참작할 것.

**열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은 몸가짐이 단정하고 예의도덕이 남다르게 발달하고 월등함. 교원은 **김정일**학생의 좋은 품성을 조장발전시키기 위하여 깊이 관심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할 것.

**열한번째 사항**

**김정일**학생이 제일 즐겨하는 식사. 겨울에는 푸짐한 장국, 봄에는 쑥갓 또는 봄나물 무치개, 여름에는 오이냉국 혹은 비빔밥, 가을에는 배추쌈이나 막두부장,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제일 즐겨함.

**열두번째 사항**

교원은 언제나 **김정일**학생의 눈가짐을 잘 살핌이 필요함. **김정일**학생이 교원을 똑바로 볼 적에는 자기의 언행에 그릇이 없음을 판단하고 신심을 가지되 교원을 외면하거나 멀리할 적에는 자기의 언행에 결함이 있음을 재빨리 판단하고 수습책을 강구할 것. 즉 **김정일**학생의 눈가짐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함.

≪열두가지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열두가지 사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그대로 엿보게 합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 비범한 예지와 탐구심.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이기시는 투지의 **, 그 어떤 특전도 바라지 않고 언제나 인민들과 꼭 같이 생활하시는 겸허하신 성품을 비롯해서 인민의 참된 영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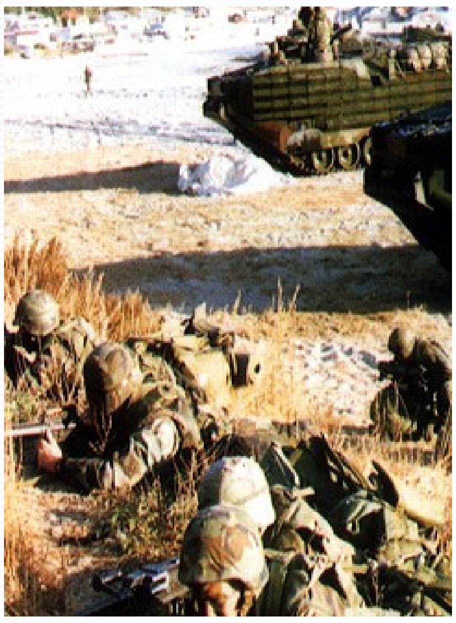
이 ≪열두가지 사항≫을 통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리신 그때 벌써 위대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모님의 혁명적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반북대결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호전세력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통합방위능력을 제고한다는 구실로 지난 7일부터 대전 등 인근지역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시 및 평시에 후방지역 통합방위능력 제고를 한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이번 군사훈련은 통합방위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시전환절차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속에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동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전세력이 구실로 내건 방위능력재고란 한마디로 그 누구의 공격을 염두해 둔 것이고 그것이 이북의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을 앞두고 남과 북, 해외에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땅의 호전세력이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해 북의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북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자들의 반통일적인 망동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북은 이미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어요. 또 미국과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연이은 북침전쟁도발책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건 전적으로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이북의 높은 자제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건 평양의 분위기를 봐도 연이은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아리랑≫공연을 비롯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호전세력이 당장 그 누구의 공격이 있을 것처럼 방위요, 전시

전환절차훈련이요 하면서 반북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서 비롯된 용납못할 반통일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은 최근 미국의 사주밑에 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이 4.5공동보도문이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반북대결적인 ≪금강산댐≫위험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화랑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국이 6.15공동선언정신에 맞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진전시켜나가려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미국의 사촉을 받는 이 땅의 호전세력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각계 민중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반통일적인 반북대결소동과 전쟁책동을 방치해둘 경우 우리 민족앞에 초래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이 땅의 호전세력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반통일적인 반북대결소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9일**

# 5.10단선과 미국

8.15광복후 이 땅을 불법강점하고 포악한 군정을 실시해온 미국은 이 땅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조국을 분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이남땅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38선 이남지역에서 단독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데로 나아갔다.

이를 위해 미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은 이승만을 한국의 ≪국부≫로 선전하는 모략방송의 전파를 날리기 시작했다.

비밀해제된 미국의 ≪HIA자료, 문서분류 69085-8-37≫에 따르면 ≪이승만의 이미지가 한국 현지에서 ≪국부≫라는 식으로 발전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하지 사령관이었다.

하지는 ≪연합군환영대회≫식장에서 처음으로 운집한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을 ≪민족의 지도자≫로 내세워 소개했다.≫(≪뉴욕타임스≫ 45.10.21)

이와 함께 미국은 48년 ≪5.10단선≫때까지 이승만의 정적들을 하나 둘씩 차례차례 제거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올려놓기 위한 고도의 공작을 했고 하지는 그것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자주, 민주, 통일정부수립을 지향해 국민각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이승만의 ≪가장 두려운 정적≫으로 부상했던 몽양 여운형씨를 46년 7월 4일 대낮에 달리던 승용차안에서 저격살해했고 심지어 국내 보수파의 대표격이던 송진우씨까지 암살제거케 한 배후원흉이 바로 미국이었다.

이른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안≫이란 것도 기실은 그 자신의 구상이 아니라 미국무성의 일부 각료와 미군정의 하지, 랭든 등이 45년 말부터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기획해 놓은 것이다. 이에 기초해 당시 미대통령 투루먼은 46년 12월 이승만을 미국에 호출하여 이남에 ≪반공적인 단독정부≫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일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나갈데 관한 지령을 하달했다.

그리하여 47년 8월 이승만을 정상으로 한 38선 이남 ≪단독정부≫수립계획보고서가 작성되게 됐고 미대통령 투루먼의 특사로 파견된 에드마이어에 의해 최종검토된 후 곧바로 백악관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진행중이던 소미공동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 퇴장 속에 파탄되었고 미국은 47년 9월 23일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시켜 한국문제를 회의의정에 포함시키는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했다.

미국은 저들의 추종국가대표들의 거수기를 발동해 47년 11월 14일에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담당한 ≪유엔한국위원단≫을 만들어냈고 ≪선거관리권≫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한 비법적인 결의를 통과시켰다.

48년 1월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기어들자 우리 민중은 미국의 분열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했다.

미국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위원단≫ 내에서까지도 이남에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성원수가 절반이나 되었다.

미국은 저들의 음모가 파탄되자 48년 2월 28일 유엔소총회에서 ≪유엔한국위원단≫이 이남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관한 결의를 비법적으로 조작했다.

이 결의의 비법성에 대해서는 ≪유엔한국위원단≫의 성원국의 한 대표까지도 ≪소총회결정의 법적정당성에 관하여 의심한다≫고 고백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단독선거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총칼탄압으로 단독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광분했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특별경비사령부≫를 설치했고 무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탱크, 대포, 기관총으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이남전역에 배치했고 하늘에는 폭격기를 띄워놓았으며 인천, 부산 앞바다에는 군함들을 정박시켰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비법적으로 조작된 ≪5.10단독선거≫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강행되었다. 그것은 민의가 수렴된 평화적 선거가 아니었고 주한미군이 개입된 군사적 폭력행사였다.

이에 대해 AP통신의 한 기자도 ≪미군정찰기는 상공을 비행하였고 선거장이 있는 곳에는 야구용타봉을 가진 ≪향보단≫에 의하여 엄중히 경호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천명의 경관과 투입된 민간인이 미군의 지원하에 각 요소와 교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각 골목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민간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용타봉, 곤봉 등을 휴대하고 있었고 경비대는 미국제카빈총으로 무장하였다. 분위기는 계엄령하의 도시와 같았다≫라고 보도했다.

미군은 선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저하는 사람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체포구금하고 마구 때리며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다.

미국은 5월7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5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민중들을 체포했고 5백89명의 애국민중을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을 감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총칼의 위협과 유혈적인 탄압으로써도 단독선거를 저들의 뜻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이미 작정했던대로 단독선거결과를 날조하여 ≪선거가 성과있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은 총칼의 방법으로 이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식민지예속정권을 조작해냄으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을 분열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0, 5월 11일**

# 윤용하희생 11주기에 부쳐

윤용하열사

11년전 윤용하열사의 분신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민중생존권과 사회의 민주화실현투쟁에 나선 노동자대중을 모해하고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적인 죄행에 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용하희생 11주기에 부쳐≫, 김혜정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0일은 윤용하열사 분신 11주기가 됩니다.

1991년 5월 9일 오후 2시경 독재타도와 미군축출을 절규하며 자기 몸을 불사른 박승희양이 입원치료중인 전남대병원 중환자실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광주시위에 참가하러 왔다면서 자기의 신분을 간단히 밝히고 승희양의 쾌유 뜻이라며 장미 한송이를 남겨놓고는 병원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그 이튿날인 5월 10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노동자의 단결로 노동해방을 이룩할 것을 절규하며 분신한 윤용하열사였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얘기하며 분신한 윤용하열사의 소식은 사람들의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열사는 1969년 4월 전라남도 승주군의 빈민가정에서 2남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시절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5살 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가 그의 다섯 남매는 막벌이, 남의 집 식모살이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사는 홀로 아버지를 따라 여수와 죽령, 군산, 전주, 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그는 이 땅의 하층 민중들이 겪어야 하는 피눈물나는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부익부빈익빈의 썩어 빠진 ≪한국≫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열사가 13살 나던 해에는 하늘처럼 믿고 살던 아버지마저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어 그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채 어린 몸으로 부친을 부양하며 가정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어린 소년공으로 가방공장에 취업해 하루 14시간이상의 힘겨운 노동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하나 살아보려고 모질게 애쓸수록 더해가는 가난과 굶주림, 업주의 착취적 횡포속에서 열사는 선배노동자인 전태일열사가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절규하며 자기 한몸을 불살랐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노동자들의 살길은 투쟁에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자주, 민주, 통일과 생존권을 위한 각계 민중의 투쟁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그해의 5월은 참으로 격동적인 시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승석씨에 대한 고문치사사건과 원진레이온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사망소식을 듣고 권력과 자본의 노동자 살인횡포에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사는 먼저 간 노동형제들의 피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 용약 항쟁의 도시 광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광주에 도착한 그는 전남대병원에 찾아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산화한 박승희열사앞에 장미꽃 한송이를 남겨놓고 곧바로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광주의 노동자, 농어민들,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파쇼집단의 폭압책동에 극도로 분격한 윤용하열사는 자기 한몸을 바쳐서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릴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오후 6시 비장한 결심을 품은 열사는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온몸에 신나를 붓고 단결과 투쟁을 외치며 몸에 불을 달았습니다.

열사는 달려온 광주시민들에게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해방을 위해 분신을 생각했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줬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생존권리와 노동해방을 그처럼 바라던 윤용하열사는 22살의 꽃다운 청춘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열사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바라며 우리 곁을 떠난지도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구조조정강요에 따라 이 땅의 권력과 자본은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의 생존수단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살인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더욱 단결하여 과감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사가 그처럼 바랐던 노동해방을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열사의 염원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해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9일**

#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조선일보 박살내자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여론조작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발전산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결사반대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 별의별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파업투쟁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 밥그릇을 떼는 행위라느니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느니 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노동자와 각계층 민중의 공기업민영화 해외매각반대투쟁이 그 누구의 추동을 받고 있는 것처럼 3자개입설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굽히지 않는 노조는 깨진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위협공갈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회여론의 대변지로써의 본래의 구실을 완전히 악용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역대적으로 외세와 권력과 자본의 푼돈이나 받아먹으며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온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중적인 매문지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권력과 자본에 편승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도 결국 노동자희생을 설교하는 황당한 궤변인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떼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자의 밥그릇은 물론 숟가락마저 빼앗는 건 누굽니까.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탈정책에 따라 이 땅의 권력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생존수단을 빼앗고 그들 모두를 죽음의 사지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벌써 생존수단, 생계터전을 빼앗기고 생사기로의 벼랑턱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노동자수가 수백만명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공기업의 민영화도 말이 좋아 민영화지 결국은 외국독점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는 해외매각입니다.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탈정책에 따라 이 땅의 기간기업을 손쉽게 장악한 외국독점자본은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오직 더많은 이윤획득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칼을 휘둘러댈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또 수천수만의 노동자들이 실업대군속에 합류될 것이고 수만천의 가정파탄과 그에 따른 집없는 고아아닌 고아들, 방랑아,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자살참극과 같은 각종 사회악들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은 그 돈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몇십배로 올릴런지는 전혀 예측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때론 정전이나 운행중지 등의 대란을 일으켜 민생에 파국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노동자나 우리 민중의 밥그릇을 깨고 명줄을 옭죄이는건 미국과 이 땅의 권력과 자본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자신이 그릇을 깼다며 공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이 나쁜 길이 아니라고 역설하는 조선일보의 행태야말로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통째로 외국독점자본에 내맡기려는 매국배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자개입설도 천만번 부당한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민생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이 투쟁에는 노동자는 물론 각계층 우리 민중 모두가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기업민영화반대투쟁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향각지의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연대파업을 전개했고 ≪한국민중연대≫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대규모집회들을 연일 벌인데 이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나선 사실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그 누구의 사주를 받아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조선일보의 행태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누구에게 통하지 않는 어불성설로 여론을 오도하고 회유기만 그리고 위협공갈을 집요하게 하는데는 악랄한 저의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권력과 자본의 철저한 시녀노릇을 해온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민중생존권쟁취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의 투쟁진출을 막고 탄압하는데 돌격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중생존권쟁취투쟁이 날로 강화되자 조선일보는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매도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갖은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해 양보와 타협,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로 경향 각지로 확산되는 투쟁불길을 차단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대오안에 분열과 와해를 조장시키고 3자개입설과 같은 것으로 탄압의 빌미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된 시대와 각성된 우리 민중을 똑바로 보지 못한 조선일보가 파쇼독재시절때 쓰던 상투적인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300만 노동자대중은 악랄하고 교활한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적인 행태에 분격을 금치 못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을 고스란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에 내맡기고 그에 붙어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권력과 자본의 시녀노릇에 광분하는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적인 책동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은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일일히 까밝혀놓고 전면적인 투쟁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이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보도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구독중지와 같은 반조선일보투쟁을 보다 폭넓고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할줄 압니다.

노동자대중은 권력과 자본의 돌격대로 나서 반노동자선전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를 무쇠주먹으로 기어코 박살내고야 말 것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8일~9일**

# 6.13선거, 시민단체≪시민후보들≫ 일낸다

## 노동계 200여명 등 400여명 지방선거 출마, 자치 · 분권 향한 발걸음 분주

대안 · 진보정치의 6.13 지방선거 참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이들 단체 소속 후보들은 이미 4백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 감시와 공명선거운동 차원을 넘어 직접 행정 참여를 통해 지자체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출마 후보자들의 윤곽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전진대회를 갖는가 하면 출정식을 갖고 자치 · 분권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의 면면도 이채롭다. 현직 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 포진해 있는 등 다양한 인물군을 형성한다.

이들은 대안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치개혁을 정치권이 철저히 외면했고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불신을 가중시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는 최근 ≪녹색후보≫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애초 전국적으로 1백여명의 후보를 낼 계획을 접고 50명선에서 녹색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을 최대화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풀뿌리 운동에 직접 나서 주민 스스로 정치 주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자치연대)도 29일 현재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전 남해군수)와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 등 1백33명(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1백8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한국청년연합회(KYC)는 지역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를 우선 영입하고 역시 전국에 걸쳐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0명 등 후보 33명을 확정했다.

노동계 후보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 조합원을 대거 출마시키고 ≪반노동자적≫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펴기로 하는 등 정치세력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에 기존 정당과 제휴하거나 무소속으로 조합원을 출마시킬 방침인데 현재 단체장 후보 4명을 포함, 89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울산과 창원 구미 등 노조 밀집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1백여명의 조합원을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시킬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김석준 부산대 교수 등 80여명의 후보를 이미 확정하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후보 조정 등을 논의할 뜻을 밝혔다.

### 노동계 최초 광역단체장 당선여부 관심

노동계 최초로 광역단체장 당선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울산에서 송철호 후보(변호사)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 송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20%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밀집지역이자 비교적 탄탄한 지역조직을 갖춘 부산 · 울산 · 경남 등 3곳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가 출마하면서 민노당은 ≪바람선거≫와 ≪조직선거≫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 합동총회를 통해 개방형 예비선거를 치른 이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시민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한나라당 아성인 영남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범진보진영의 후보≫서 대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문옥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 서울을 넘어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한 김준기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및 우리땅 되찾기 경기도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의 상징성도 커 보인다. 김 상임본부장은 서울대 농대 재학시절부터 농민운동을 해왔으며, 민중의당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현재 널리 불려지는 ≪농민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창한 지부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지은 민노당은 녹색평화당(가칭) 후보와의 시민후보 추대를 놓고 고민중이며, 박종현 광주시장 후보 역시 자치연대 정동년 후보와 경선을 벌일 예정이지만 독자 출마도 배제 못하고 있다. 부산시장에는 김석준 후보(부산대 교수)가 일찌감치 시민후보 계열에 들어서 한나라당 · 민주당 후보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5월 6일 현재 확정된 지방선거 출마자는 광역단체장 3명(서울 · 광주는 조합원 투표 및 경선 진행),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70명으로 총 1백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추대 등을 통한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선언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12월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앙당은 당면의 대중 투쟁 수행과 선거 투쟁을 결합시키는 등 전당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진보후보 난립 ≪시민후보≫ 난망
### 정당 · 단체간 입지 강화 명분
### 단일화 외면이 큰 걸림돌

하지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안 · 진보정치계의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아 ≪시민후보≫ 브랜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가 집중 · 중복 출마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분열과 표분산 우려가 크다.

후보 난립은 보스중심의 낡은 거대정당과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민다수가 주체가 되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후보를 내야 한다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간 혹은 단체간 입지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앞서 풀뿌리 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계 최초로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울산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송철호 변호사를 후보로 선출한데 이어 장태원 울산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상희 울산경실련 사무처장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이 송후보를 ≪시민후보≫로 추대한 상태지만 사회당 또한 안승천 부대표를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해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색해지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방침을 결정하면서 사회당에도 참여를 공식 제안했으나 사회당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이는 입지 강화를 위한 예비 선거일 뿐이라며 예비선거 참여를 거부하고 안승천 사회당 부대표를 자체 후보로 선출했다.

송후보 선거사무실 송주석사무처장은 사견을 전제로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 막판에 가면 진보 · 개혁 정치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이 사표방지를 위해 후보단일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사회당과 후보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의견 교환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은 각 진보 · 대안정당들이 대표급 후보들을 시장 후보로 출마시켜 후보 난립이 더 심하다. 민노당 이문옥 부패추방운동본부장과 사회당 원용수 대표가 진보진영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녹색평화당 임삼진 공동대표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 단일화는 더욱 어렵게 됐다.

또 후보들은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민후보≫를 추대할 것인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이후보가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개방형 예비선거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주는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를 공동 결성한 광주민중연대와 자치연대가 후보 경선을 치루도록 했지만 심각한 진통을 겪은 나머지 각자 출마로 돌아섰다.

민중연대 후보로 인준된 민주노동당의 박종현 후보와 자치연대 정동년 후보를 놓고 진보진영 예비 경선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과연 경선 결과에 두 조직이 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후보단일화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연대에서 추대한 정동년 후보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각계인사 7천여명이 ≪시민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 역시 진보진영의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공동 기구인 ≪개혁과 희망의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의 힘≫이 김창한(민노당) · 김영규(사회당) · 신맹순(녹색평화당) 후보에게 예비 경선을 제안했으나 서로간 의견이 엇갈려 예비 경선은 물거품이 된 상태다.

한편 부산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김석준 후보가 부산 민중연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후보추대위원회를 통해 5월말께 김후보를 ≪시민후보≫로 추대할 예정이고, 이재용(대구) · 김두관(경남) · 이치범(고양) 후보 등은 일찌감치 ≪시민후보≫로 추대되 이들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설동본기자**
**시민의 신문 2002/05/10**

# 반이회창투쟁은 응당한것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의 리회창을 정계에서 들어 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 지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리회창이 집권하면 전쟁밖에 일어 날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표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반역을 일삼는 리회창에게 있어서 응당한것이다.

기질적으로 악한 리회창은 극악한 반통일분자이고 친미사대매국노이며극악한 호전광이다.

그는 일찌기 ≪법관≫의 모자를 쓰고 반미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쑈의 제물로 만들었다. 정계에 발을 들여 놓고서도 못된 짓만 골라 하였다.

리회창의 손탁에서 ≪한나라당≫의 극우보수경향은 더 농후해 졌다.

그는 6.15공동선언이 탄생하자 그것이 ≪미군철수≫에로 이어 질수 있다고 떠벌였다.

그의 반민족적인 대북관과 반통일로선은 최근 폭로된 ≪대북기본로선≫에서 더욱 명백해 졌다. 여기서 그는 ≪선평화, 후교류협력≫을 고집하며 북남화해와 협력자체를 부정해 나섰고 지어 ≪북부개발계획≫이라는 도발적인 계략까지 꾸며 자기의 ≪북침통일≫망상을 드러냈다.

권력욕에 환장이 된 리회창은 다음기 권력을 노리고 외세의존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그는 미국을 행각하여 부쉬의 ≪악의 축≫론을 긍정해 나서는 등 미국의 대조선전쟁정책의 나팔수로 나서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그를 ≪제2의 리완용≫으로 락인하고 반리회창투쟁으로 그에게 맞서고 있다.

리회창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역적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5월 9일

# 안티조선 봉화 12일 계룡산서 오른다

## ≪대전물총≫의 안티조선 집회에 지역 통일단체도 호응

오는 5월12일 일요일, 올해 처음으로 안티조선 대중집회가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행사주최는 조선일보 바로보기 대전시민연대(대전물총)이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충청지역 인물과 사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사모)이 주관단체로 참여한다.

이는 지난 해 8월 대전물총이 결성된 이후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중집회이며 이번 3차 대회 장소를 계룡산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대전충남 민언련의 우희창 사무국장은 일요일날 대중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계룡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번 대회는 대전충청지역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경기남부지역 노사모 등 타 지역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명계남 노사모 대표일꾼은 광주에서의 5.18 마라톤 행사참석을 취소하고 참여할 만큼 신경을 쓰는 행사이다.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대표와 서울물총의 회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충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안티조선 운동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단체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 범민련 정효순 의장, 한만승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애국지사 숭모회의 이규희 회장, 전국연합의 김병수 사무처장, 통일연대 전기룡 사무처장 등 지역의 통일단체 집행부가 대거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지역의 전교조, 민주노동당, 과기노조 등에서도 참여를 할 예정이어서 행사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행사의 주최단체인 대전물총을 이끌고 있는 한 시민은 인터넷에 올린 ≪5월 12일, 안티조선의 봉화가 계룡산에서 오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티조선 운동이 소강상태로 들어가 있으나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위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제 안티조선 운동이 다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게끔 해야한다.≫고 이번 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대전지역에서의 안티조선 집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번 집회로 인하여 뜨거운 안티조선 봉화가 전국 각지의 명산 명소에서 타오르게 되길 고대한다≫고 행사의 당위성과 의의에 대해 쓰고 있다.

과연 올해 처음으로 이번 계룡산에서 오르는 안티조선의 ≪봉화≫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지, 그리고 통일단체와 시민운동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안티조선에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주식당 앞에서 시작하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개별적으로 등산을 하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인철기자
오마이뉴스 2002/05/09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6)

서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혁명운동과통일운동의주도역량과방조역량
조선노동당과전위조직
선군혁명과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 선군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조선혁명의 수령이시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8권의 ≪혁명가 김책≫편에서 선군혁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하며 민족적 독립이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모든 투쟁의 결말은 대체로 무장투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일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요인도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김구네 세력, 이승만이네 세력, 여운형이네 세력을 비롯하여 각이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본 것은 우리의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원이나 파업이나 붓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완강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시며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혁명의 승리적 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습니다.≫(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2001 12 21 재인용)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노동신문 2001 12 15 재인용)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가지 논제≫는 먼저 지난 논문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

→

광 고

# 통일혁명이론연구3

##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 보도 90호)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김일성**주석,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김정일**장군, ≪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재인용)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조국의 통일혁명정세는 전국적 범위에서 가속도적으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혁명이론에 대한 연구도 하루가 다르게 심화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혁명이론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통일혁명실천도 제대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런 이유에서 ≪통일혁명이론연구≫자료집을 연속 발간합니다.

≪통일혁명이론연구3≫은 그 중 통일혁명이론과 관련있는 주요논문들의 모음입니다. 이 논문집에는 최근년간 발표된 논문들 중 우리 운동대오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논문 12편이 엄선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관련 논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문집이 동지들의 통일혁명이론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선군혁명사상을 학습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필자의 두 논문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오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필자는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선군혁명사상에 의거하여 필자의 두 논문에서 드러난 모호성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 투쟁의 성과물로 남겨져 오늘 동지들 앞에 삼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 가지 논제≫는 선군혁명의 개념을 규정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의 관계, 조선노동당의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선군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선군혁명으로 됩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첫째, 선군혁명은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혁명을 체제변혁으로 볼 때, 조선혁명은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선군혁명이란 혁명무력을 앞세우며 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선군혁명이란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말한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조국통일운동과 주체가 일치하며 그 과정도 통일적으로 전개되므로 결국 선군혁명은 선군조국통일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선군혁명은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고 선군3대혁명이며 선군세계혁명이다.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만이 아니라 3대혁명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혁명의 부분이다. 조선혁명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은 이러한 3가지 혁명임무를 모두 자신의 혁명과업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이러한 3가지 혁명임무를 조선인민군을 앞세우며 수행한다. 이것을 광의의 선군혁명이라고 한다면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협의의 선군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선군혁명은 선군3대혁명보다는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 협의의 조선혁명이기 때문이다.

세째, 조선인민군은 우리의 군대, 우리의 혁명무력이다.

우리의 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선도적 역량이자 주력은 조선인민군이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님이 창건하신 군대이고 위대한 장군님이 지휘하시는 군대이며 영웅적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이며 조국해방전쟁시 미제국주의연합군을 타승한 최강의 군대이며 인민의 아들딸로 구성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의 군대이다. 우리의 수령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고 우리의 당이 조선노동당이며 우리의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우리의 군대도 조선인민군이다.

네째, 조선혁명은 베트남혁명과 투쟁방식이 다르다.

베트남혁명은 혁명기지를 지역적으로 부단히 확대해가는 전략하에 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남베트남지역에서는 민중봉기와 함께 무장투쟁이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베트남혁명에서 베트남공산당과 혁명무력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군사정치적 공세와 더불어 군사적 공격도 전개하였다. 우리 조선혁명도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군사정치적인 전략적 공세만 취할 뿐 군사적 공격은 취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 군사적 공격을 취할 경우에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혁명은 베트남혁명과 달리 전략적 공격이 아니라 전략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미군을 철거시키는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지지역에서 투쟁방식은 민중봉기만이 기본형태로 되는 것이다. 물론 미제국주의가 혁명기지를 침략할 경우에는 투쟁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그 때에는 조국해방전쟁처럼 조선인민군만이 아니라 혁명기지와 식민지의 민중들도 무장을 들고 사활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계엄령≫까지

## ≪전함 포템킨≫

몽타쥬기법으로 세계영화사에 전설이 된 고전 중의 고전. 구 쏘련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이 1925년에 감독하였다. 1905년 제정러시아시대, 전함 포템킨의 수병들은 장교들의 학대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썩은 고기를 식량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반란을 일으켜 함선을 장악한다. 포템킨은 흑해 오뎃사 항구로 향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수병들을 환영하러 부두로 나온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오뎃사의 계단≫ 장면. 짜르의 코자크군대가 반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은 수병들과 합세하여 봉기하고 짜르의 군대와 싸우며 혁명대열에 선다. 마치 ≪일어나는 돌 사자상≫처럼... 영화에 나오는 참으로 인상적인 구호 하나, ≪전몰용사들은 기억하리라,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